

헤테로토피아의 공간

박진아展 5. 30~8. 2 하이트컬렉션

박진아의 <네온 그레이 터미널>전은 공항과 전시장, 그 두 이질적 공간을 맞세울 뿐만 아니라 상호 공명시키고 나아가 중첩한다. 공항의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건축 구조와 시설물은 전시장의 중립적인 구조와 모호한 기능에 시각 경험상 포개진다. 또 공항에서 당연한 통과, 이동, 기다림의 운동과 하얗고 네모나지만 전시장의 낮은 천장 및 여러 벽들 때문에 열리고 가로지르고 겹치고 단절되는 시선의 움직임은 은유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유사해진다. 어떻게 이 미적 효과가 가능했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회화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때 회화는 공항의 여러 풍경이나 모습을 2차원 평면에 환영적으로 모방한 그림이 아니다. 대신 작가가 공항이라는 공간의 속성과 작품이 선보일 전시장의 속성을 교차 연구한 후 감각을 재구성한 그리기와 설치를 뜻한다. “일종의 리서치인 셈인데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부러 그레본 적이 없다.” 이 짧은 말이 <네온 그레이 터미널>에 나온 신작 그림 20여 점과 사운드-회화 설치 한 작품을 통해, 앞서 쓴 것처럼, 공항과 갤러리를 중첩시킬 수 있었던 작가의 방법론을 밝혀 준다.

네온 그레이 터미널의 화이트 큐브 회화

흔히 우리는 회화를 스튜디오 내부에서 행해지는 창작의

결과물(studio based art)로 생각하기 쉽고, 개념이나 이슈를 내세운 다수의 현대적 그림들이 실상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박진아의 이번 그림들은 꽤 축적된 현장 경험 및 조사에 기반을 두고 제작됐다. 그리고 실제 전시 또한 그림 안에 담긴 공간과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을 세심하게 짜 맞추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감상자는 예컨대 전시장 입구 승강기문이 열리자마자 여행 가방에 기댄 채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는 여행객 그림 <엘리베이터>와 마주치게 되고, 전시장 안쪽에 걸린 <홀웨이>를 보면서는 어느 작은 공항 복도의 삭막한 구조와 자신이 서 있는 장소의 구조를 분위기로 연결시켜 보게 된다. 또 오로지 회색의 변주로 채워진 모노크롬 회화 3점을 앉아서 볼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작가가 현대음악가 페터 간과 협업해 만든 전자음악(공항에서 채집한 소음을 작곡의 소재로 쓴)을 들을 수 있는 방에서는 공항과 갤러리와 회화와 음악이 서로를 이행시키는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이를테면 박진아가 공항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림보(limbo)’로 상상했다면, 우리는 같은 이유에서 그의 공항 작품을 혼재향(heterotopia)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 것이다.

물론 공간은 일정한 차원과 구조, 형태와 질서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공간은 또한 특유의 속성으로 그 공간과 접촉하는 이들의 감각에 복합적으로 개입하고, 사고와 행동, 외관과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당신이 지금 늘어진 면 티를 입고 마룻바닥에 널브러진 채 멍한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집’이라는 공간의 ‘내부’라는 속성에 섞인 결과다. 그럼 박진아가 <네온 그레이 터미널>을 창작한 배경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진 여행 때문에 공항에서의 경험이 쌓였다고 말한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동시대 글로벌리즘의 일상적 공간이 된 공항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 또 미술의 관례적 전시공간이자 지금 여기 문화산업의 핫 플레이스로서 갤러리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까? 둘은 애초 장소의 설립 목적이 먼 만큼이나 속성도 멀어 보인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머릿속 판단일 뿐이다. 현재 공항이나 갤러리는 공히 사적 신체와 주관성은 물론 집단의 문화, 취향, 경험, 기억, 물질 등등이 밀고 당기고 섞이는 힘의 장(force-field)으로서 그 속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아의 <네온 그레이 터미널>을 보들레르식 표현을 써서 ‘현대적 삶의 회화’라고 긍정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점을 전시로 구현해서다.

/ 강 수 미

<짐 포장 01> 캔버스에 유채 130×120cm 2013. 공항을 소재로 짐 포장을 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착을 기다리는 모습 등 공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광경들을 포착한 신작 20여 점을 선보였다. 또한 독일 작곡가 페터 간(Peter Gahn)과 사운드 협업을 시도했다.

